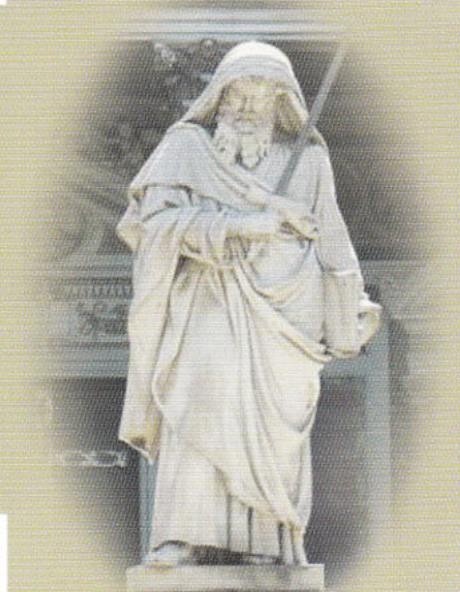




케리그마

KERYGMA

◆케리그마(KERYGMA)란 그리스어로 복음선포라는 뜻입니다



천주교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

(051) 583 - 6314 ~ 5

물고기 비늘이 마르지 않게 하자

평협회장 김명복(에드몬드)

† 찬미 예수님 !!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대 중국의 주(周)나라 때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보통 사람과 달리 비범한 능력을 타고 나서 일생 전력을 다한 수련 끝에 득도하여 자연의 모든 사물과 기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하루는 장자가 길을 가는데 어딘가 자꾸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장자님' 하고 누군가가 간절하게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변을 둘러봐도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를 찾지 못하여 다시 길을 가던 중 또다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 나는 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물이 거의 말라 바닥이 보이는 웅덩이 안에 물고기 몇 마리가 비늘이 거의 마른 채 죽어가고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장자는 다시 발길을 돌려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했다. 그러자 그 웅덩이 속의 붕어들이 소리쳐 애걸하기 시작했다. '장자님, 지금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 비늘이 말라 거의 죽어갈 지경입니다. 저희에게 한 말의 물이라도 좋으니 지금 당장 부어주면 곧 살아 날 수 있습니다. 저희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애걸했다.

이 말을 들은 장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물고기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아주 많은 강줄기의 물을 대주마.' 하자 물고기 들은 탄식하며 '장자님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늘이 말라 한시가 급합니다. 비늘 축일 물만이 필요합니다. 만일 장자께서 큰 강의 물줄기를 이곳까지 대는 작업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시장 어물전에 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있어서 최종적인 것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처음에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따로 있다. 장기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면 현실의 급함을 놓쳐 버릴 수가 있다. 일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는 것도 삶의 지혜다. 물고기들에겐 큰 강의 물보다 비늘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물이 우선 필요하다.

교우 여러분들이 모아서 보내드린 후원금들이 어려운 나라의 물고기들의 비늘(기아에 허덕이는 어려운 사람들)이 마르지 않게 하고 있다. 즉, 생명을 구하고 있다. 시기를 놓친 많은 양보다 시기적절할 때 주어지는 적당량의 것이 더 가치 있다. 덥고 목마른 날 음료수 자판기 앞에서의 동전 몇 닢처럼 말이다. 교우 여러분, 작은 정성으로 큰 보람을 느끼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관심은 곧 사랑입니다.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에 살림, 살림, 살림. †

사랑의 나눔

해외선교후원회장 강기수(마태오)

“축복해 주는 이는 자기도 흡족해지고,
마실 물을 주는 이는 자신도 흠뻑 마시게 된다.” (잠언 11, 25)

어느 구청 광고탑에 ‘나눔 그것은 사랑의 시작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로 나누고자 호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남산성당 후원회비 게시판을 볼 때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매달 잊지 않고 후원금을 내어 주시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2009년 올해는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니 기적과 같은 아름답고 보람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우리 신자 분들의 관심과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부님, 수녀님, 평신도들이 우리가 보내는 후원금은 많지는 않았지만 선교지에서의 성과는 너무나 큰 것 이였었다며 감사의 소식을 전해 왔을 때는 몇 갑절 더 기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해외선교 후원회는 10년 동안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이 세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구석구석에 우리들의 후원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 봅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신자 한 분 한 분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해외선교 후원회를 위해 보여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 2008년도 남산성당 예외선교 우원회 결산보고 ♠

1. 보고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2. 설립일자 : 2000. 08. 02
3. 회원 수 : 271 명
4. 운영위원 :

구 분	성 명	세 례 명	연 락 처
지도신부	김 기 흥	베 르 나 르 도	583-6317
회 장	강 기 수	마 태 오	514-8158 / 011-848-2461
총 무	조 강 현	가 밀 라	581-5770 / 011-9521-8024
위 원	김 명 복	에 드 몬 드	516-5826 / 010-6712-5826
위 원	이 학 열	베 르 나 르 도	581-7381 / 011-863-3111
위 원	조 진 호	보 나 벤 뚜 라	517-4517 / 011-9516-0119
위 원	김 태 익	라 우 렌 시 오	514-2241 / 011-562-4130
위 원	박 정 운	프 란 치 스 코	904-1657 / 011-9399-1657
위 원	박 우 진	가 밀 로	581-9423 / 018-561-6682
위 원	박 영 순	마 리 아	581-8727 / 011-9314-8728
위 원	김 남 희	도 미 니 카	517-8991 / 010-6757-8991

5. 회계보고 :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전년도 이월금	325,037	1월	살레시오 수도회 /아프리카 토고	1,000,000
특별후원금	3,365,000	2월	요셉 수녀회 지원 (네팔)	1,000,000
회비 입금액	16,822,000	3월	예수선교수녀회(콜롬비아)	1,000,000
예금이자	813	4월	한국외방선교 수녀회(볼리비아)	1,000,000
		5월	예수성심전교수녀회(필리핀)	1,000,000
		6월	사도 성 요한 수도회(아프리카 콩고)	2,000,000
		7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페루)	1,000,000
			살레시오 수도회 /아프리카 수단(이태석 신부)	1,000,000
		8월	살레시오 수도회 /아프리카 토고	1,000,000
			예수선교수녀회(콜롬비아)	1,000,000
			사도 성 요한 수도회(아프리카 콩고)	2,000,000
		9월	예수성심전교수녀회(중국 서안)	1,000,000
		10월	한국외방선교 수녀회(볼리비아)	1,500,000
		11월	요셉 수녀회 지원 (네팔)	1,000,000
		12월	살트르 바오로 수녀회 (몽골)	2,800,000
			사도 성 요한 수도회(아프리카 콩고)	800,000
			후 원 회 미 사 봉 헌 예 물	220,000
			지출합계	20,320,000
			차기 이월금	192,850
수입합계	20,512,850		총 합계	20,512,850

♠ 2008년 해외선교 후원외비 납부연왕 ♠

(기간 : 2008. 1. 1 ~ 2008. 12. 31)

No.	성명 / 세례명	외비입금	No.	성명 / 세례명	외비입금
< 1 구역 >			< 5 구역 >		
1	장영미 / 헬레나	20,000	39	이승주 / 시몬	60,000
2	김용식 / 바스디아노	50,000	40	강인수 / 미카엘	36,000
3	이현식 / 다니엘	60,000	41	조봉래 / 스테파노	24,000
4	윤정필 / 베드로	24,000	42	성명경 / 치릴로	24,000
5	장정표 / 라파엘	45,000	43	박춘달 / 요한	27,000
6	김벽연 / 바실리오	36,000	44	이민원 / 베드로	33,000
7	정진곤 / 바오로	20,000	45	정현식 / 라우렌시오	60,000
8	문용득 / 안드레아	18,000	46	박요숙 / 도로테아	60,000
9	강호구 / 제르비노	60,000	47	성경훈 / 필립보	36,000
10	곽근희 / 요세피나	36,000	48	강순조 / 아브라함	36,000
11	박유석 / 요셉	55,000	49	고유건 / 라우렌시오	39,000
12	박외숙 / 마리스텔라	100,000	50	박창언 / 요셉	14,000
13	박영자 / 글라라	20,000	< 6 구역 >		
< 2 구역 >			51	강신수 / 예로니모	120,000
14	김경란 / 로사	36,000	52	이봉희 / 요셉	60,000
15	이병재 / 요셉	36,000	53	손영식 / 로벨도	24,000
16	김정수 / 모니카	18,000	54	김봉자 / 아나다시아	120,000
17	안해숙 / 안젤라	36,000	55	김연두 / 야고보	36,000
18	구정현 / 엘리야	120,000	56	정동수 / 대건안드레아	50,000
19	김동훈 / 암브로시오	36,000	57	김태운 / 파비아노	120,000
20	백순임 / 엘리사벳	60,000	58	최채경 / 글라라	60,000
21	박화춘 / 요한	120,000	59	허만 / 베르나르도	55,000
< 3 구역 >			60	배봉희 / 노엘라	24,000
22	이임자 / 마틸다	60,000	61	김중곤 / 암브로시오	36,000
23	전동조 / 아브라함	36,000	62	김위규 / 요셉	60,000
24	최병식 / 안토니오	36,000	63	장상숙 / 마리아	24,000
25	정영혜 / 세실리아	60,000	< 7 구역 >		
26	이귀성 / 모니카	24,000	64	서국남 / 카타리나	20,000
27	한성광 / 레오	60,000	65	이봉춘 / 쎄실	60,000
28	박기석 / 그레고리오	24,000	66	서영우 / 아오스딩	24,000
29	서수원 / 스테파노	120,000	67	김완석 / 알폰소	10,000
30	권영남 / 안셀모	30,000	68	이승화 / 안토니오	24,000
< 4 구역 >			69	이정자 / 막달레나	24,000
31	천춘식 / 니콜라우	90,000	70	김이경 / 미카엘	60,000
32	안우규 / 유스티노	60,000	71	권철성 / 마르셀리노	60,000
33	신현권 / 아우구스티노	24,000	72	강영란 / 크리스티나	36,000
34	김병홍 / 펠릭스	10,000	73	지남숙 / 엘리사벳	60,000
35	정호기 / 안드레아	120,000	74	김영순 / 나탈리아	50,000
36	변상길 / 가시아노	120,000			
37	김홍주 / 베드로	60,000			
38	박재호 / 예로니모	60,000			

♠ 2008년 예외선교 우원외비 남부연왕 ♠

(기간 : 2008. 1. 1 ~ 2008. 12. 31)

No.	성명 / 세례명	외비입금	No.	성명 / 세례명	외비입금
< 8 구역 >			< 11 구역 >		
75	박희찬 / 요셉	24,000	118	정정순 / 올리아나	24,000
76	장두채 / 루카	24,000	119	김영애 / 로마나	60,000
77	김정숙 / 로사리아	36,000	120	김춘명 / 아네스	36,000
78	박정운 / 프란치스코	120,000	121	강문구 / 요셉	60,000
79	전석도 / 이레네오	24,000	122	강덕 / 험바오로	30,000
80	이점수 / 아오스딩	60,000	123	이필우 / 요한	60,000
81	이학렬 / 베르나르도	120,000	124	배명란 / 젤뚜르다	36,000
< 9 구역 >			125	강용자 / 루실라	33,000
82	김기택 / 세례자요한	60,000	126	박선호 / 요한	24,000
83	김현민 / 소피아	60,000	127	구종희 / 루카	240,000
84	박기봉 / 프란치스코	120,000	128	오시용 / 프란치스코	220,000
85	이상은 / 요셉	36,000	129	조석제 / 베드로	24,000
86	임영호 / T. 아퀴나스	33,000	130	박우진 / 가밀로	50,000
87	김재환 / 바실리오	36,000	< 12 구역 >		
88	장병수 / 그레고리오	36,000	131	김옥자 / 벨라데타	45,000
89	김대원 / 안드레아	60,000	132	신민준 / 레오폴도	120,000
90	김의용 / 요왕	240,000	133	김길환 / 아우구스티노	30,000
91	류해전 / 스테파노	120,000	134	박영곤 / 안드레아	36,000
92	김성수 / 프란치스코	120,000	135	유동부 / 루카	60,000
93	박영자 / 안젤라	24,000	136	김명복 / 에드몬드	120,000
94	이석주 / 프란치스코	10,000	137	고성자 / 리디아	40,000
95	박기순 / 바오로	20,000	138	정춘옥 / 바실리아	24,000
96	김동애 / 아델라	60,000	139	김완애 / 글라라	36,000
97	김석도 / 대건안드레아	36,000	< 13 구역 >		
98	이장희 / 로마노	120,000	140	곽태훈 / 야고보	27,000
99	양수남 / 크리스티나	24,000	141	김수자 / 마리아	60,000
100	정수태 / 가브리엘	24,000	142	김우선 / 사도요한	50,000
101	이영자 / 마리아	24,000	143	김익태 / 비안네	60,000
102	김은희 / 마리아	36,000	144	우영철 / 요셉	60,000
103	김균태 / 알로이시오	24,000	145	이분자 / 크리스티나	24,000
< 10 구역 >			146	김종현 / 아오스딩	24,000
104	강기수 / 마태오	120,000	147	박호조 / 바오로	24,000
105	최경자 / 아네스	24,000	< 14 구역 >		
106	박종임 / 에스텔	120,000	148	김영순 / 세라피나	55,000
107	전상훈 / 안드레아	36,000	149	황숙자 / 유리안나	24,000
108	허옥련 / 베로니카	24,000	150	차무언 / 베드로	60,000
109	서미영 / 아네스	100,000	151	박정희 / 소피아	24,000
110	김기진 / 바오로	48,000	152	이경희 / 비비안나	5,000
111	김일열 / 요한	24,000	153	차경옥 / 수산나데레사	24,000
112	정가희 / 프란치스코	36,000	< 15 구역 >		
113	정순구 / 라우렌시오	20,000	154	김강민 / 아우구스티노	36,000
114	박호 / 요한	240,000	155	김남희 / 도미니카	55,000
115	이재수 / 즈가리아	60,000	156	김명숙 / 우슬라	24,000
116	김영일 / 하삼바오로	360,000	157	김옥분 / 카타리나	60,000
117	문보성 / 미카엘	3,000	158	김종학 / 프란치스코	60,000
			159	성난희 / 아네스	5,000
			160	강정식 / 올리아노	36,000
			161	이수택 / 테오노렌마리노	30,000

♠ 2008년 해외선교 후원외비 남부연왕 ♠

(기간 : 2008. 1. 1 ~ 2008. 12. 31)

No.	성명 / 세례명	외비입금
< 16 구역 >		
162	홍덕주 / 요한	8,000
163	류형규 / 라자로	30,000
164	이지영 / 유스티나	23,000
165	최종걸 / 대견안드레아	200,000
166	이영호 / 요나	60,000
167	길창순 / 시몬	24,000
168	김영운 / 루돌프	16,000
169	금병호 / 요한	36,000
170	이철재 / 요셉	22,000
171	황영진 / 프란치스코	60,000
172	윤숙옥 / 모니카	26,000
173	허종문 / 베드로	60,000
< 17 구역 >		
174	전순현 / 안나	120,000
175	이정희 / 데레사	44,000
176	정인옥 / 엘리사벳	20,000
177	진을연 / 로사리아	15,000
178	옥윤강 / 요한	24,000
179	김원기 / 분도	45,000
180	김광원 / 스테파노	60,000
< 18 구역 >		
181	박종근 / 알렉시오	60,000
182	조일제 / 마르코	120,000
183	김영남 / 베드로	120,000
84	설순심 / 안나	60,000
185	김옥 / 루카	240,000
186	정재식 / 프란치스코	55,000
187	박주희 / 마리아	15,000
188	정경덕 / 마리아	10,000
189	박정엽 / 스테파노	24,000
190	이철주 / 그레고리오	60,000
191	김성환 / 요셉	240,000
192	김양수 / 요한	30,000
193	전지영 / 아우구스티노	100,000
194	안석수 / 아오스딩	10,000
< 19 구역 >		
195	이세영 / 리노	60,000
196	김영희 / 마르타	60,000
197	이국수 / 미카엘	50,000
198	강희선 / 아타나시오	55,000
199	이부식 / 안토니오	120,000
200	설상국 / 스테파노	60,000
201	김갑용 / 요한	24,000
202	김정자 / 안나	24,000
203	우향기 / 데레사	60,000
204	정홍택 / 라파엘	24,000
205	김구용 / 요셉	22,000

No.	성명 / 세례명	외비입금
206	방상청 / 마르코	20,000
207	김영희 / 카타리나	36,000
208	김무남 / 아우구스티노	24,000
209	김성덕 / 대견안드레아	60,000
210	김동수 / 알로이시오	60,000
211	김병익 / 미르피노	60,000
< 20 구역 >		
212	조강현 / 가밀라	50,000
213	권오기 / 그레고리오	60,000
214	예정해 / 요한	60,000
215	손상갑 / 라파엘	60,000
216	이태현 / 프란치스코	50,000
217	신경준 / 시몬	5,000
218	손찬곤 / 바오로	24,000
219	최준대 / 시몬	60,000
220	최민혜 / 미카엘라	36,000
< 21 구역 >		
221	이종기 / 라우렌시오	60,000
222	장창오 / 요한	60,000
223	김종자 / 엘리사벳	60,000
224	박태영 / 세례자요한	36,000
225	우재권 / 요셉	55,000
< 22 구역 >		
226	이희경 / 로사리아	24,000
227	이상숙 / 수산나	36,000
228	이경희 / 소피아	24,000
229	김혜자 / 엘리사벳	60,000
230	박보영 / T. 아퀴나스	120,000
231	김대경 / 바오로	48,000
< 23 구역 >		
232	조진호 / 보나벤투라	120,000
233	최병림 / 요한	36,000
234	장종희 / 마리아나	60,000
235	이숙종 / 실비아	36,000
236	박기호 / 베드로	20,000
237	김영찬 / 시몬	30,000
238	김광현 / 미카엘	24,000
239	김정희 / 실비아	60,000
240	박봉원 / 엘리지오	240,000
< 24 구역 >		
241	원덕희 / 베드로	1,060,000
242	이종길 / 에밀리오	120,000
243	고준태 / 알비노	60,000
244	이희영 / 베드로	120,000
245	신종문 / 루치오	24,000
246	이은영 / 글라라	120,000
247	김미향 / 안젤라	120,000
248	강독석 / 알로이시오	1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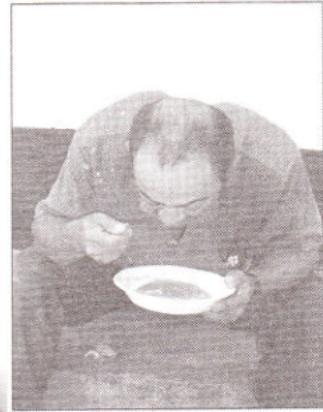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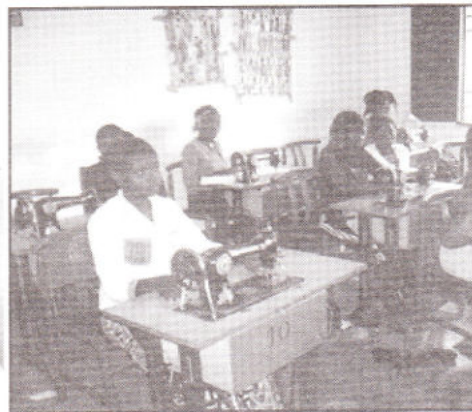
♠ 2008년 해외선교 후원외비 남부연왕 ♠

(기간 : 2008. 1. 1 ~ 2008. 12. 31)

No.	성명/세례명	외비입금	No.	성명/세례명	외비입금
249	윤양현 / 안토니오	10,000	265	손태목 / 필립보	60,000
250	이명숙 / 안젤라	12,000	266	김영준 / 리차드	20,000
251	이광웅 / 베드로	120,000	267	김학래 / 요셉	10,000
252	이갑승 / 라파엘	120,000	268	고경숙 / 스텔라	10,000
253	김찬두 / 야고보	120,000	269	좌동성당(배안나)	100,000
254	신수희 / 올리아	33,000	270	민영권(사직성당)	50,000
255	이영화 / 루시아	36,000	271	최종자(외인)	600,000
256	홍경수 / 안드레아	60,000	총합계(271명) : \16,822,000		
257	김향로 / 빌제쁘르따	10,000	<특별 후원>		
< 기타 구역 >			272	박인순 / 안나	440,000
258	민경임 / 데레사	24,000	273	성모회	800,000
259	최영수 / 요셉	24,000	274	익명	25,000
260	송기윤 / 그레고리오	24,000	275	익명(망미성당)	200,000
261	서수일 / 스테파노	24,000	276	익명	1,900,000
262	류근요 / 사도요한	36,000			
263	김영아 / 아니타	120,000			
264	김봉현 / 스테파노	120,000			



후원해 주신 후원금이 이런 곳에 쓰여졌습니다,
다시 한 번 후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 남산성당 예외선교우원의 2008년도 활동사왕 ♠

(기간 : 2008. 1. 1 ~ 2008. 12. 31)

No.	월 별	우원단체 및 국가	내 용
1	1월	살레시오 수도회 / 아프리카 토고	빈민선교
2	2월	요셉 수녀회 / 네팔	학교 및 빈민구제
3	3월	예수선교 수녀회 / 콜롬비아	무료급식, 빈민선교, 의료시설
4	4월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 볼리비아	빈민선교, 교육환경 개선
5	5월	예수성심전교 수녀회 / 필리핀	교육 및 빈민선교
6	6월	사도 성 요한 수도원 / 아프리카 콩고(아볼라)	빈민선교, 교육환경 개선, 고아시설
7	7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 페루	빈민선교, 탁아소 운영
8		살레시오 수도회 / 아프리카 수단(이태석신부)	빈민선교, 진료소 의료시설
9	8월	살레시오 수녀회 / 아프리카 토고	빈민선교
10		예수선교 수녀회 / 콜롬비아	무료급식, 빈민선교, 의료시설
11		사도 성 요한 수도원 / 아프리카 콩고(아볼라)	빈민선교, 교육환경 개선, 고아시설
12	9월	예수성심전교 수녀회 / 중국 서안	빈민선교, 선교지 파견
13	10월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 볼리비아	빈민선교, 교육환경 개선
14	11월	요셉 수녀회 / 네팔	학교 및 빈민구제
15	12월	살트르 바오로 수녀회 / 몽골	빈민선교 및 교육환경 개선
16		사도 성 요한 수도회 / 아프리카 콩고(아볼라)	빈민선교 및 의료비 지원



♠ 선교지에서 온 감사 편지 ♠

†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김기홍(베르나르도) 신부님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토고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섭리에 의해 강기수(마태오)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곳 남산성당 해외선교 활동에 깊은 감명 깊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선에서 뛰고 신부님을 비롯한 모든 신자 분들은 현지에서 뛰며 영적 물적인 후원으로 응원을 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저도 더욱 힘이 납니다. 내일 다시 저의 자리를 돌아가기전 이렇게 두서없이 저의 감사를 드리며, 삶이 기도를 약속드립니다. 마태오 회장님을 비롯해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2008. 2. 26

박세실리아 수녀 드림



†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감마태오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부산에서 보았던 박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다시 한 번 회장님과 함께 오셨던 형제분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남산성당의 신부님과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황청 전교 잡지부에서 글 청탁이 와 간단히 소개한 것을 같은 내용으로 회장님께 보내 드립니다. 그 곳 전교 잡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CD에 담은 약간의 사진은 우편이나 아니면 성가정 성당으로 가는 인편이 있는데 그 편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분들과 만나올 이르게 섭리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토고로 돌아가면 그 곳의 열악한 전기, 통신의 사정으로 인해 메일을 드리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자주 소식을 드리기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저희 수도회 관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의 선교로장 계좌번호를 알려 드리오니 가끔 생각해 주시면 하느님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후원금을 관리하게 된 이유는 돈을 송금하게 되면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고 또 자주 돈이 융실 되는 경우가 있어 한국에서 관리를 해주고 저희가 휴가를 나오게 되면 그 때 외화를 직접 바꾸어 가면 훨씬 이익이 되고 안전하기 때문이지요.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때로는 자신들의 돈이 정말 아프리카까지 가는가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많은 양의 돈을 제 계좌로 넣으셨을 경우 저에게 즉시 연락이 오고 그러면 제가 즉시 감사편지를 드린답니다.

아무튼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마태오 회장님께 특별한 감사로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회 임원들 또 지속적으로 선교 사목을 이끌어 주시는 본당 신부님께 감사 인사 많이 전해 주시고, 또 연락드릴 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2008년 1월 13일

박세실리아 수녀 드림

† 만민에게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강기수(마태오) 회장님과 남산성당해외선교후원회 회원님들께

이제 가을의 향기가 물씬 풍겨옵니다.

저희 수녀원에 담쟁이들이 제일 먼저 빨갛게 익어 가을의 색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 저희도 덩달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설레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작 인사드리고 감사의 편지도 보내 드렸어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교님 편으로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선교하고 계신 저희 수녀님들의 편지와 함께 이렇게 목주다발이 선물로 보내 온 것입니다. 저희 주교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 수녀님들이 손수 주교님의 패류를 빌며 하나하나 만드셨으리라 봅니다. 허나 지금은 선물만 남겨진 상태며 주교님의 강복도 받지 못한 목주입니다. 허나 저희 총원장 수녀님께서 볼리비아를 후원하시는 후원회 회원님들께 나누는 것이 옳은 것이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 회원님들께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지만 회장님의 지혜로우신 방법으로 골고루 나누실 것을 믿습니다.

가을의 풍성함과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최선(요한) 주교님의 크신 사랑을 담아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 회원님들의 가정 안에 주님의 축복과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2008. 8. 26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후원회
기도 안에서 담당수녀 올림



♠ 선교지에서 온 감사 편지 ♠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주임신부님과,
강기수(마태오) 회장님과
회원님에 대한 감사편지

안녕하십니까?

avolar는 마음이 상처받기 쉬운 소녀들에 대한 우리 재생 센터의 재봉 재단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귀하의 중요한 재정적 도움에 진솔하게 그리고 무한히 감사를 드리는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귀하가 보내주신 400만원 (4,000달러)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우리의 활동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 재정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별첨 상세부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귀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08 10. 3

MR. ELVIS MBIYA TEKADIOMONA

MBANZA-NGUNGU 지역내의 상처받기 쉬운 소녀들을 위한 재단 재봉 작업장의 설치 및 교육에 대한 원조 프로젝트

2008 9월 MR. ELVIS MBIYA TEKADIOMONA

우리는 우리의 소 프로젝트인 MBANZA-NGUNGU 지역내의 상처받기 쉬운 소녀들을 위한 재단 재봉 작업장의 설치 및 교육에 대한 원조 프로젝트에 400만원 (4,000달러)를 보내주신 부산에 있는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 강기수(마태오)씨가 책임 맡고 있는 후원회원들에게 감사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 프로젝트가 MBANZA-NGUNGU 지역에 있어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에 비추어 재정도움이 두 배가 되었다는 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제안에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았으나 원자재처럼 필요한 어떤 것들을 감당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술한 소 프로젝트의 재정은 대략 400만원 (4,000달러)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인들에게

산띠라니 학교 언덕과 마을로부터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우리의 산띠라니 학교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기쁜 성탄과 2009년 새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레햄 아기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커다란 축복을 베푸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은인들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고, 여기의 수녀님과 선생님들은 우리들을 매우 친절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이 다가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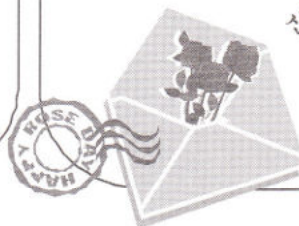
여기는 산띠라니는 지금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큰 사랑을 항상 기억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당신께서 기쁜 성탄과 새 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 11. 08

산띠라니 아이들로부터



♠ 선교지에서 온 감사 편지 ♠

† 만민에게 복음을 !

주님 안에 사랑하올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 형제, 자매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해발 2,700m 정도의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입니다. 볼리비아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인 코차밤바에서 선교활동 중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내려다보면 한 눈에 도시 전체가 다 보일 정도로 작고, 인구도 땅에 비해 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느 나라, 도시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여기 또한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공동체에서 약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산동네인 산타세실리아가 나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무허가로 집을 지어 사는 동네라 아직 전기, 수도, 전화시설도 없는 곳입니다. 밤엔 촛불을 켜 놓고, 우기철엔 빗물을 받아 사용하고, 건기에는 없는 돈으로 물을 사서 사용합니다. 씻을 물이 없으니 아이들 모습이 어찌나 지저분한지.....

저희가 일하는 지역엔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이 방대하여 성당에서 먼 지역, 윗동네는 저희가 활동을 합니다. 첫 영성체, 견진교리는 저희가 하고 몇 군데 지역에서는 성서모임을 합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저희 공동체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역 신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공간을 마련해 아이들 공부방과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시작 단계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놀 만한 공간도 없다 보니 방학 때 동네를 나가 보면 아이들이 흙먼지 속에서 뛰어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전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동체에서 성당까지 가는 거리가 제법 멀기 때문에 성당 가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일엔 두 집에서 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간이 없다 보니.....

어쩌면 그것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성당이 멀든, 가깝든, 그들의 마음에 신앙심이 있다면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마는 여기 볼리비아 사람들은 식민지 시대에 받아들인 신앙이기에 자발적인 신앙의 삶보다는 소극적이고, 일종의 관습처럼 신앙을 살아 갑니다. 그래서 미사 참석하는 이도 적고, 활동이 지지부진 합니다. 시작 단계인 저희들의 계획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열심히 뛰어 다닙니다.

지난 번 후원회 수녀님을 통해 저희를 위한 큰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부족하지만 뚝뚝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저희들이 소박하게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큰 신앙으로 자라길 기도해 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하시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코차밤바에서

2008년 6월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녀들 드림

♠ 2008년 해외선교후원의 소식 ♠

(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2008. 01. 03	아프리카 토고 선교지에서 휴가차 오신 살레시오 수녀회 박세실리아 수녀님을 회장님과 운영위원님들과 면담을 갖고 그 곳의 어려운 선교 현황과 생생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 2008. 01. 12	그 동안 운영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이희영(베드로) 형제님께서 사임하고 김남희(도미니카) 자매님, 운영위원으로 위촉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2008. 03. 09	양산 바오로 영성관에서 있었던 2008년 평협 회장단 모임에서 부산교구장 황주교님으로 부터 선교 단체상을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가 수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2008. 04. 25	한국외방선교수녀회를 방문하여 해외선교에 관한 현황과 소식을 들었고 당일 후원금 100만원을 후원금으로 냈습니다. 그 동안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 2008. 06. 01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와 안락성당후원회가 오남주(프리모) 신부님의 영명 축일을 맞아 두 분당간 해외선교후원회 발전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2008. 06. 04	한국외방선교수녀회를 설립하시고, 초대 부산교구장 이셨던 최재선(요한) 주교님께서 선종하셨으며, 최주교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 2008. 06. 29	이영석(세례자요한) 신부님의 첫 미사를 위해 우리 본당에 오신 예수회 소속 이진태(안토니오) 신부님을 면담하고 아시아의 미안마로 파견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부님의 해외선교 사목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 2008. 07. 13	원덕희(베드로), 최예은(글라라) 부부님께 아프리카 콩고 후원금으로 100백만원을 후원 해주셨고, 박인순(안나) 자매님께서도 34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2008. 08. 10	우리 후원회의 총무인 조강현(가밀라) 자매님을 문병하여 쾌유 기도를 드렸습니다.
◆ 2008. 08. 23	본당 성모회에서 콩고 선교 후원금으로 8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2008. 08. 29	아프리카 콩고 후원에 특별 후원금이 익명으로 190만원을 보내왔고, 박인순(안나) 자매님께서 재차 10만원을 보내왔으며, 즉시 콩고 선교지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2008. 08. 31	☆ 부곡동 사도 성 요한 수도원을 방문하여 콩고 후원금 전달과 함께 그 곳의 현황과 소식을 듣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회원들에게 전했습니다. ☆ 사직성당 재정부장이신 민영권(빅토) 형제님께서 후원금 5만원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8. 09. 07	한국외방선교수녀회의 남미 볼리비아 선교지에서 선교CD와 수녀님들께서 손수 만드신 묵주 24개를 보내와 운영위원과 회원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 2008. 09. 21	예수성심전교수녀회의 중국 서안에서 선교활동 중인 이두레(바오로) 수녀님께서 본당을 방문하여 주임신부님과 함께 그 곳의 선교 소식을 들었고, 후원금 10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 2008. 10. 12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2008. 11. 20	남미 볼리비아에서 선교활동 중인 한국외방선교수녀회의 김경량(가브리엘라) 수녀님께서 휴가차 오셔서 본당 주임신부님과 저희 운영위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그 곳의 선교활동에 관한(빈곤, 가정과파 등) 소식을 들었으며, 후원금 15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 2008. 12. 08	평화방송 "사랑이 있는 세상" 이라는 프로그램 중 미담을 찾아 남산성당편에서 해외선교후원회에 대한 활동과 소식을 후원회장님께서 소개하였습니다.
◆ 2008. 12. 15	금년 한해의 마감과 내년의 사업계획을 위해 주임신부님과 함께 운영위원들과 해외선교후원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2008. 12. 30	본 케리그마 소식지 제작을 위해 이갑승(라파엘), 우재권(요셉), 황임선(마리아), 손일관(크리스토폴) 형제님께서 빨랑가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납니다.

박정운(프란치스코)운영위원

케리크마(Kerygma)는 ‘복음 선포’라는 뜻을 가진 우리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의 소식지입니다. 복음 선포에 앞장서는 해외선교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해선후 활동 중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2007년 봄 한국의방선교 수녀회에 초대 부산교구장이었으며 한국의방선교회를 설립하셨던 고(故) 최재선(요한) 주교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백수(白壽)가 다 되어 가는 노령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매진하시는 주교님의 절제된 삶은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교님을 방문한 저희들에게, 선교는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마태 28, 19-29)에 바탕을 둔다.

해외선교는 복음의 전파자들이 온 세계에 가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들과 집단에 교회를 부식(扶植)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한 사업이고 민족간, 나라간, 지역간의 친교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자리를 잡고 성장한 한국교회가 이제는 밖으로 눈을 돌려,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탈바꿈하여 열악한 상황의 국가들에게 선교의 손길을 펼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해외선교의 당위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교님의 설명을 듣고 해외선교 후원회의 활동의 의의와 필요성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된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긍지를 갖고 해선후 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예수님의 “네 형제들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 40)”라는 예수님의 말씀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 남산성당 교우님들은 누구나 해외선교후원회 회원으로 가입하시어 도움을 주시고, 또한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활동회원으로 저희와 함께 사랑 실천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납니다 !
생각이 바뀌면 기쁨이 보입니다 !



2008년 성탄절

아기예수님의 사랑 !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 회장님께

은총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성탄절에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희망에 찬 새해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이 곳 몽골리아의 가난한 이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시는 신부님, 회장님과 뜻을 함께하시는 은인들에게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저희 학교 아이들을 계속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선교 사업에 도움을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은 걱정 없이 공부를 잘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고 칭찬하러 방문을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귀 후원회에서 도와주시는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곳 몽골리아에는 이번 겨울에 대단히 추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추울까?

상상이 안 되지요? 참! 춥습니다. 두꺼운 방한복과 털모자와 부츠를 신고, 긴 목도리로 칭칭 감아 눈만 내 놓으면 마치 귀여운 곰 새끼 같은데, 게다가 목도리 위로 서린 김이 얼어붙고, 속눈썹까지 얼어붙으면, 영락없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아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기도, 묵상, 미사를 드리고 커튼을 열면 아직도 캄캄한 밤 일찍 해가지고, 늦게 동이 트는가 봐요. 우리 학교 아이들을 보통 새벽에 깨면, 눈 비비고 바로 새벽에 옵니다. 미사 전에 벌써 초인종이 울리고, 문 밖에 동동거리고, 빨강계 얹은 아이들의 볼은 터질 것만 같아요. 이 어찌 예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치원에는 3세에서 5세까지 50명의 아이들이 몬테소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들을 훈련하며 쑥쑥 커가고 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엄동의 “궐”집에서 유치원에 올라와 따뜻한 교실에서 선생님의 돌봄에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놀면서 하루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울란바토르 초등학교에 120여명과 존모드 초등학교에도 90여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수업을 잘 받고,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잘 먹고, 사랑 받으며, 잘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당은 착한 목자의 성당이라고 하는데, 우리 수녀님이 소임을 하는 곳입니다. 몽골의 전통 가옥 “궐”에서 본당 사목을 하여 오다가, 단층 건물로 신축하여 지난 14일에 성당 축복식을 하였어요. 본당 신자들이 추위에 덜 고생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는 성 바오로 주교좌 대성당에도 우리 수녀님들을 초대하여, 파견을 허락해 주셔서 두 수녀님들이 2월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드리며, 아기 예수님의 사랑, 평화,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몽골리아 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박진영 미셀 수녀드림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문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온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가 돕고자 하는
 선교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의 모임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직도 당신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소서.
 또한 저희가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저희의 활동이 결코,
 저희들만의 일이나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기도와 자선과 봉사안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며
 이세상 곳곳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의 모임이 더욱더
 충실해지기를 비오며
 그리스도의 정신이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지극히 사랑하옵 예수님,
 은인들을 기억하시어
 선교사업을 위하여 도와주신
 모든 은인들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 범교구적 해외선교와 국내해외선교기관을 후원합니다 (선교회·수도회)
- 해외선교후원회원은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본당 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후원회비는 월2,000원 이상이고, 본당 사무실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매월 첫째주일 오전 9시 미사에는 해외선교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봉헌이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로 문의 바랍니다.

❖ 선교지 발행에 도움을 주신 분들 ❖

다비치 안경

두 실 점

65세 이상 돌보기 무료

김완석 (알퐁소)

김임영 (루피나)

051) 516-4470

두실전철역 3번 출구

현대자동차판매대리점

부곡동 판매점

손일관 (크리스토폴)

051) 512-0028

010-4130-0369

보원당 건강원

건강중탕일체, 홍삼엑기스

양파, 배, 포도엑기스

황임선 (마리아)

051) 583-3078

011-9543-5207

(주)금정소방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방염처리 전문 /

소방기구 도.소매 / 특수소방설비 전문

대표이사 조진호 (보나벤뚜라)

장환옥 (마리아)

051) 514-0119 FAX. 517-0092

구서1동 420-20 (금정구청 후문)